〔報 文〕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13, No. 2 (1989) p. 166~179

# 조선왕조 鹵簿(어가행렬) 儀禮에 관한 硏究

## — 형식구조의 파악을 중심으로 —

白 英 子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 A Study on the Royal Procession Ceremonies in the Yi Dynasty

##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ystems —

**Young-Ja Baik**

Dept. of Home Economics, National Korea Air and Correspondanc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iscuss the frameworks of the gorgeous and magnificent royal procession ceremonies in the Yi Dynasty, thereby exploring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three stages and five segments" on the basis of cultural anthropology and Korean traditional shamanism of ancestral sacrifices.

The ceremon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phases of (1) cleanup stage, (2) primary objective attendance stage, and (3) completing stage. Among these phases, p. imary objective attendance stage was further distributed into five segments of (1) road guide, (2) dressing, (3) royal procession, (4) attendants' procession, and (5) back row procession.

The isolates and functions of the royal procession ceremonies in the Yi Dynasty were studi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Lèvi Strauss's structural methodology.

## I. 序 論

### 1.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範圍

鹵簿(어가행렬)는 歷史속에 사라진 과거의 일에 불과하지만 생생한 現場感이 있다. 그러나 들여다 보면 볼수록 복잡한 요소가 뒤섞여 한없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이 어렵다. 더욱더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수백가지 의식에 따른 수많은 행렬이 역대조선왕조를 통해 계속되었고 시대에 따른 차제의 변천으로 인한 力動性까지 감안한다면 더구나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런 고로 지금까지 어가행렬인 반차도를 중심으로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의식과 복식이 유리되어 유기적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오로지 복식만을 떼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것과 같다. 鹵簿에 등장하는 服飾이라는 나무를 연구하기 위하여는 鹵簿儀禮라고 하는 숲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총제적인 파악속에서 하나의 요소인 복식이 연구되어 졌을 때 비로소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효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식만 떼어 연구하는 정체적이고 단편적인 연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구방법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많은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鹵簿를 총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더불어 유기적으로 복식이 연구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연구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왕조를 중심으로 시대별에 따른 각종 鹵簿儀禮 자료를 종합하여 당연히 있어야 할 보편타당한 형식구조를 찾는 것에 주력을 두고 연구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服飾이나 儀仗物 등등의 요소로서의 분석연구는 보다 제한하고 축소하여 다음 기회의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 2. 研究方法 및 意義

이 논문의 기본적인 의도는 복식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鹵簿儀禮를 총체적인 구조로 파악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부합되는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1) 국조오례의 등의 禮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2) 儀軌類나 두루마리 병풍 등으로 남아있는 圖繪類를 시각적 자료로 現場感을 파악하는데 사용하였다.

(3) 鹵簿를 儀禮行爲의 하나로 보고 문화인류학적인 입장에서의 의례분류법과 전통 무속에서의 祭儀분류법을 기준으로 연구 활용할 것이다. 또 요소 분석에 있어서는 Lévi-strauss의 "萬華鏡의 方式"[1]과 Hall이 주창하는 素의 개념[2]들에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노부의례의 보편적인 형식구조를 찾는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의례와 의례복식이 유기적인 관계로 연구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 3. 內容의 構成

鹵簿儀禮의 일정한 형식틀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문체제를 구성할 것이다. 제II장에서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모든 종류의 鹵簿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연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 III장에서는 보편적 형식구조를 찾기 위한 연구로서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일반적 의례를 3단계로 나누고 있고 한국 고유의 무속 의례적인 입장에서도 역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노부의례를 3단계와 5分法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논의할 것이다. 다음 IV장에서는 3단계로 구분된 노부의례의 요소 및 기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별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제V장에서는 III, IV장의 논의를 종합 정리하여 이 논문의 주제인 3단계 5分法을 확인하고 이 형식이 복식요소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틀임을 유의하게 될 것이다.

## II. 鹵簿의 역사적 전개

모든 국가적 의례를 행하는 儀式에는 반드시 力動的이고 생생한 現場感을 주는 鹵簿(어가행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현존하는 조선왕조 시대의 국가적 규모의 의례인 어가행렬 자료는 대체로 3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基本法典의 역할을 하는 禮典類와 실제 儀式을 진행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내는 圖繪類, 그리고 과거의 歷史를 단편적으로나마 실제로 입증해 주는 遺物類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1. 禮典類로서의 鹵簿(어가행렬)

禮典으로서의 鹵簿가 수록되어 있는것은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로 노부식, 의장반차도 등이 있는데 이들 자료의 특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 이들의 구체적인 次第를 설명한 내용을 圖式化한 것은 그 내용이 너무 길어 생략하기로 한다.)

(1) 世宗實錄

朝鮮建國의 초기는 국가를 창업하는 시기로서 모든 禮文이 갖추어지지 못했으므로, 太宗이 許綱에게 命하여 吉禮의 序例와 儀式을 撰術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미흡하여 禮官들이 한때의 재량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세종代에 이르러 정척과 변호문에게 命하여 嘉禮, 賓禮, 軍禮, 凶禮등의 禮를 撰定하였다. 이는 典禮와 故事 및 唐·宋·明의 제도를 취사 선택하여 신미년(1451)에 완성하였다.

이때 冠禮도 또한 강구 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고 이미 완성된 四禮(가례, 빈례, 군례, 흉례)와 許綱가 찬술한 吉禮를 世宗實錄에 附錄한 것이다[3]. 특히 嘉禮 부분에는 鹵簿의 次第를 상세히 설명하여 놓았다.

(2) 國朝五禮儀

朝鮮은 世宗代부터 禮制가 定立되기 시작한 후 成宗代에 이르러 四代 60여년만에 國朝五禮儀를 편찬 完成하므로서 國家의 기본 예식을 확립하였다.

이는 위로는 君王으로부터 아래로는 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에 상응하는 禮制에 따르도록 禮의 기본을 정립한 조선왕조 시대의 대표적인 古法典으로서의 禮書이다. 성종 5년(서기 1474년)에 晋山君 姜希孟이 왕명에 의하여 이 예서를 撰定하였는데 그 서문에 「예를 기술한 것이 3천 3백 가지의 글이 있기는 하나, 그 요점은 吉, 嘉, 軍, 賓, 凶의 다섯가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이 다섯 가지의 예의를 갖추어 행함으로써 사람의 도리가 구체화 된다」고 함을 보아 이 예제가 인간생활의 규범으로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져 왔는가를 알 수 있다.

(3) 國朝續五禮儀

成宗代에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의서례가 찬정된 후 약 270년이 지난 英祖 20년(서기 1744년)에는 국조오례의와 국조오례의 서례의 내용중 시대의 변천에 따라 첨삭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 尹淨으로 하여금 國朝續五禮儀序例를 찬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7년(서기 1751년)에는 申晩으로 하여금 국조속오례의 및 국조속오례의서례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國朝續五禮儀補와 國朝續五禮儀補序例를 찬정하도록 하였다. 이중 鹵簿의 次第는 國朝續五禮儀까지에만 실려 있다.

(4) 鹵簿式, 儀仗班次圖

조선조 후기의 鹵簿式, 儀仗班次圖 등에는 出駕의 大小儀仗의 수효와 從官의 차례 및 위치를 圖式化로 標記하여 儀式의 규범으로 삼았다. 出駕의 大小儀仗을 쓴 折(책)인 노부식의 제작연대는 1762년(영조 38년)으로 인정되고 있다[4]. 따라서 이는 朝鮮初期에 定해진 鹵簿의 儀仗內容이 집대성도 완전히 定立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노부의 중요한 골격만 추려 일목요연하게 도식화 하였고 노부의 종류는 의식과 신분에 따라 더 많이 보충되었다[5]. 즉 이 "鹵簿式에는 大駕導駕(165柄), 法駕導駕(110柄), 小駕導駕(56柄)의 使用法과 祈雨祭儀仗 및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 王世孫등의 儀仗式이 적혀 있다. 부록으로 仁政殿, 正至誕日, 朝賀, 仁政殿進安, 仁政門朝參[6], 黃儀仗, 景幀細儀仗, 行用細儀仗, 樂器工生總數등이 수록되어 있다.

儀仗班次圖는 鹵簿式과 같은 내용의 책으로서 純祖때 증보된 것이다.

## 2. 圖繪類의 鹵簿(어가행렬)

現存하는 圖繪類의 鹵簿에서 儀軌類에 그려진 班次圖, 두루마기 병풍에 그려져 있는 班次圖가 있는데 자못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1) 儀軌類의 班次圖

儀軌는 朝鮮王朝의 國家行事 및 여러가지 儀式, 例를 들면 世子 및 王妃의 册對行事, 世子 및 王의 婚禮, 國葬, 山陵의 築造, 王后의 尊號 및 先代王과 王后의 謚를 올리는 行事, 建物의 築造, 功臣의 册封行事, 御室의 改造, 御容의 圖寫, 親耕行事 等을 치르는 論議過程, 準備過程, 儀式節次, 進行, 行事가 끝난 後에 그 行事 有功者들의 褒賞에 대한 記錄이다. 이러한 國家行事가 있을 때에는 그 行事를 主管하는 臨時官廳을 設置하였다가 行事가 끝나면 이를 罷하였는데 이러한 臨時官廳을 都監이라 불렀다. 都鑑은 行事의 名稱에 따라 禮都監, 册禮都監, 國葬 및 禮葬都監, 山陵都監, 祔廟都監, 尊崇都監, 謚號都監, 封陵·遷陵·封墓都監, 營建都監, 錄勳都監, 金寶改造都監, 影幀都監, 璿源譜署修正實錄廳, 祭器都監, 迎接都監都聽 등이 있으며, 이 都監에서 行한 行事名에 따라 儀軌의 具體的인 名稱이 個別的으로 붙여졌다. 各都監에서는 同行事를 치른 過程 一切를 日字順으로 記錄한 膽錄을 만들었다가 행사가 끝난 후에는 후일에 參考하기 위하여 儀軌廳을 둔다. 여기서 膽錄에 他의 資料를 補完하여 整理한 것이 儀軌이다[7]. 이러한 儀軌에는 여러가지 啓辭와 傳敎를 月日順으로 배열하고 參加한 人員들의 職位, 性名을 序列에 따라 정리하며, 거래한 各種 文牒들은 種類別 月日順으로 分類하고, 行事에 소요된 經費와 物目들을 상세히 記錄한다. 이러한 記錄과 함께 그 行事中 가장 중요한 장면을 圖式이나 班次圖로 그려서 保管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논문 내용의 성질상 많은 儀軌 중에서 王室의 婚事를 다룬 嘉禮都監儀軌에 실린 班次圖만으로 제한하여 논의 하고 다른 자료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다. 이 嘉禮都監儀軌는 現在 20件이 전해지고 있는데 임진왜란(1592~1598)후인 仁祖 5년(1627)의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에서부터 光武 10년(1906) 純宗妃 嘉禮都監儀軌까지의 279년간에 거행된 嘉禮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彩色圖寫로 제작된 班次圖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시대적 흐름에 따른 鹵簿를 從的으로 考察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들 20件의 班次圖는 儀式의 내용과 규

모면으로 볼때 대략 前期(1권에서 10권)와 後期(11권에서 20권)의 2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嘉禮儀式節次[10]를 바탕으로 해서 볼때 前期班次圖는 嘉禮儀式節次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儀式인 同牢宴을 치루기 위하여 王妃나 王世子嬪이 別宮에서 御殿으로 待衛를 받으며 들어가는 場面을 그린 班次圖이고 後期班次圖는 親迎儀를 치르기 위해 王(世子)이 친히 王妃(世子嬪)집에 납시어 王妃(世子嬪)와 함께 環宮하는 場面을 그린 것이다[11]. 또 규모로 볼때 前期의 班次圖는 8面에서 18面 정도로 그 行列이 대체적으로 짧으며 後期의 班次圖는 46面에서 92面에 이르는 긴 행렬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2) 두루마리類의 班次圖

두루마리로 된 班次圖는 水原幸行圖, 大韓帝國動駕圖, 高宗代로 보이는 년대 미상의 嘉禮班次圖 등이 있다.

水原幸行圖는 作者未詳의 彩色畵 두루마리로서[12] 正祖의 華城 水原 行宮 할때의 御駕 행렬을 나타낸 班次圖이다.

大韓帝國 動駕圖는 1920年代로 추정되는 鹵簿[13]이다. 다음 嘉禮班次圖는 1864~1985年 사이의 國末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루마리이다[14].

(3) 병풍류의 班次圖

병풍류의 班次圖는 비원에 소장되어 있는 8曲의 正祖

〔표 II-1〕 노부(어가행렬) 의례의 연대표

| 王朝·年代 | 禮 典 類 | 王朝·年代 | 儀 軌 類 (가례) | 王朝·年代 | 圖繪類(두루마리 병풍) |
|---|---|---|---|---|---|
| 세종代 (1451) | 세종실록 | | | | |
| 성종 5 (1474) | 국조오례의 | | | | |
| | | 인조 5 (1627) | 소현세자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
| | | 인조 16 (1638) | 인조장열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
| | | 효종 2 (1651) | 현종명성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
| | | 현종 12 (1671) | 숙종인경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
| | | 숙종 7 (1681) | 숙종인현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
| | | 숙종 22 (1696) | 경종단의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
| | | 숙종 28 (1702) | 숙종인원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
| | | 숙종 44 (1718) | 경종선의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
| | | 영조 3 (1727) | 진종효순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
| 영조 20 (1744) | 속 국조 오례의 | 영조 20 (1744) | 장조헌경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
| | | 영조 35 (1759) | 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
| 영조 38 (1762) | 노 부 식 | 영조 38 (1762) | 정조효의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손) | 정 조 代 | 수원행행도병풍 |
| 순 조 代 | 의장반차도 | 순조 2 (1802) | 순조순원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비원소장) |
| | | 순조 19 (1819) | 문조신정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 정리의궤 |
| | | 헌종 3 (1837) | 헌종효헌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민 화 |
| | | 헌종 10 (1844) | 헌종효정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연대미상 | 가례반차도 |
| | | 철종 2 (1851) | 철종철인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
| | | 고종 3 (1866) | 고종명성후 가례도감의궤 ( 왕 ) | | |
| | | 고종 19 (1882) | 순종순명후 가례도감의궤 (왕세자) | 1880년(추정) | 대한제국동가도 |
| | | 광무 10 (1906) | 순종순종비 가례도감의궤 (황태자) | | |

大王 陵幸圖가 대표적인 자료이며 그 밖에 작자미상인 民畫類의 병풍도가 있다[15].

### 3. 遺物類

창덕궁에 남아있는 각종 기치와 의장물, 복식들은 노부 의례에 직접 사용되었던 중요한 요소로서의 遺物들이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우리나라 노부의위에 관한 연구[16]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III. 鹵簿儀禮의 보편적 형식구조

鹵簿는 국가적인 규모의 儀禮 行爲이다. 이 儀禮 행위에는 일반 의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절차가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형태 이든간에 의례형식의 틀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일반 의례의 형식을 통해서 여기서 연구고자 하는 노부의례의 형식틀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 1. 儀禮의 一般的 意味와 機能

많은 학자들이 儀禮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왔지만 "儀禮"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상징의 문제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儀禮는 마술적이고 통신적인 행위를 포함한다."라는 주장에서 부터 "儀禮는 신비스러운 것에 지향되어 있고 신비스러운 것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의해 비의례적인 것으로 부터 의례를 구분한다." 는 등의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양 각색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의례는 종교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행위 그리고 다른 인간의 제 행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인간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항목 임에는 틀림없다. 의례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의 차원에 있는 가치를 나타내며, 의례의 연구가 인간사회의 기본 골자에 관한 이해의 첩경이라고 볼때 의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어느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도 삼라만상에 관해 文化的으로 정의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문화의 사람들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러한 감각을 상징화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의례행위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강화하는 절약적인 수단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표준화된 언어와 행위에 의한 제가치의 상징적 표현 이라는 의례의 정의가 가능하다[17]. 이러한 의례는 그 의례가 수행되고 있는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례는 사회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기존 사회의 제 가치를 확인, 강화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② 의례는 일상생활의 심리적 동요에 직면하여 보호감정과 안도감을 제공한다. 기도를 한다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많은 종교적 숭배가 이에 해당된다.

③ 의례는 지위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그 변화를 인식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통과의례에서의 입사식, 결혼 등은 개인을 그 사회내에서 어떤 한 지위로부터 다른 지위로의 이행을 확인하고 그 지위를 보호해준다.

④ 의례는 문화적으로 발생 가능한 심리적 긴장의 해소기능을 가지고 있다. 逆轉儀禮라고도 하며 권력이 강한 아프리카 군주에 대한 주민들의 모욕행사의 허용을 포함하는 의례를 말한다.

⑤ 의례는 위기에 의해 교란된 인간상호관계의 재조정 방법으로서 존재한다. 특히 세시의례에 의한 집단의 강화와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한 기존성원의 익숙된 적응유형의 교란은 통과의례에 의해 그 생활주기가 조정된다.

⑥ 의례는 통신적 국면을 그 기능의 하나로 한다. 문화의 차이에 따라 의례의 통신적 기능은 그 양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개인간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악수에서부터 의식에 착용된 복장에 이르기까지 의사표현의 기능을 갖게 되어 Lévi-strauss는 사고과정의 통합성으로서 의례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 소통 체계의 형성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⑦ 의례와 의례적 규제는 주민의 영양문제에 관련을 맺고 있다. 의례를 통한 돼지고기의 섭취는 인간의 체조직 형성과 신진대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⑧ 상기와 같은 긍정적 기능에 대해 부정적 기능, 즉 역기능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을 피곤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의식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의례는 긴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고로 지루한 의식의 중간에 광대를 삽입시키는 것 등이 긴장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18]. 이들 의례의 다양한 기능은 앞으로 노부의례를 설명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 2. 鹵簿儀禮의 분류 및 범주

禮의 기본을 정립한 朝鮮王朝時代의 대표적인 禮典은 II장에서 거론된 국조오례의이다. 여기에는 傳來의 古制와 故事를 광범위하게 취합하여 국가적인 규모인 의례의 기본원칙과 그 시행절차를 통일 집대성 하였다.

모든 의례는 吉禮, 嘉禮, 凶禮, 賓禮, 軍禮등 五禮로 나뉘어졌다.

吉禮는 나라의 大祀, 中祀, 小祀 등의 제사에 관한 儀禮이고, 嘉禮는 國婚, 賜宴, 册封禮에 관한 것이며 凶禮는 國葬에 관한 儀禮이고, 賓禮는 國家의 迎送에 관한 儀禮이며, 軍禮는 出征 및 班師에 관한 儀禮이다. 이들 수백가지의 모든 의례에는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떼어진 非日常的인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노부행렬이 따르게 마련이다. 모든 종류의 의식을 총망라한 鹵簿儀禮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편적인 구조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의례의 분류 방법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의례에 관한 분류는 대체적으로 通過儀禮[19]와 歲時儀禮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개인 또는 집단이 한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이행할 때 일어나는 의례를 말하고, 후자는 그 사회에서 연도별, 계절별, 월별, 주별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된 의례로서 논리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通過儀禮(the rêtes of passage)는 반 게네프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20] 인간의 出生, 成年, 婚姻, 死亡에 관한 의식으로 인간 누구나가 일생을 통해 거쳐가는 동안 특정한 목적으로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과의례는 출생에 따르는 誕生儀禮, 成人이 되는 과정인 成年儀禮, 혼인에 따른 婚禮, 그리고 사망에 따르는 葬禮가 있다.

이러한 통과의례가 일생을 통해 되풀이 되지 않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의례라면, 세시의례는 일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의례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세시의례는 특히 식물을 재배하는 농경민에게 존재하고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례이다[21].

이러한 분류 방법외에 儀禮는 目的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 生產儀禮, 農耕儀禮, 生植儀禮, 分離儀禮, 强化儀禮, 破壞儀禮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의례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행할 수 있다[22].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朝鮮王朝에서 행하여진 五禮儀에 나타난 200여개의 수많은 의식은 전자의 분류방법인 통과의례와 세시의례로 분류될 수도 있고, 후자의 분류 방법인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질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분류와 후자의 분류가 또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항목에 따른 분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현존하는 자료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을 제한하여 풀어가고자 한다. 즉 본 연구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적으로 연결되어 계속되어 지는 鹵簿 자료는 嘉禮班次圖를 가장 우선으로 꼽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 國婚儀式인 嘉禮鹵簿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다음 단계로 차츰 범위를 넓혀갈 수 밖에 없는 애로점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왕실의 혼례를 다룬 嘉禮班次圖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통과의례로서의 혼례행렬이며 목적 분류로 볼때는 국가의 위엄을 나타내는 정치적 목적으로서의 强化儀禮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 3. 鹵簿(어가행렬)儀禮의 形式

의례행위에서 이룩되는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함과 동시에 상호 연관되어 일련의 행동 절차를 구성하고 하나의 의례형식을 형성한다.

一例로 李光奎는 문화인류학 개론에서 이 의례형식을 다음과 같이 三分法으로 분할하고 있다. 通過儀禮의 의식절차, 의례에 따르는 社會關係, 祝祭 등이 사회마다 다르지만 하나의 의례는 내용상 세 가지의 형식을 갖는다. 세가지 내용이란 分離儀禮(separation), 過渡儀禮(transition) 그리고 再統合儀禮(reimcorporation)이다.

예컨데 成年式을 보면 소년을 가족의 一員에서 분리시키고 苦行으로 淨化하며 祝祭에서 成人의 社會에 통합된다.

또, 葬禮는 生의 세계에서 死의 세계로 移行하는 과정에 수반된 儀禮이며, 死亡者의 社會的 지위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인간관계와 지위를 재조절하는데 부수되는 의례이다. 이곳에서도 分離, 過渡, 再統合의 과정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는 出生儀禮, 婚禮에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세시의례에서도 마찬가지 형식을 취한다는 이론이다[22].

다음의 예로 金 泰坤은 韓國巫俗研究에서 서울 굿 12거리의 祭儀 과정을 三段過程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체 굿 12거리 과정에서 첫째, 不淨 거리에서의 祭場淸潔, 둘째, 가망거리 이하의 請神, 셋째, 뒷전거리에서의 送神 이렇게 三段過程으로 굿이 진행되고, 또 가망거리 이하의 各 祭次가 請拜의 請神, 打令의 歌舞娛神의 接待, 공수의 神意聽取, 이렇게 역시 3단과정으로 굿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祭禮 전체와 그 속의 개별적인 각 祭次가 모두 각기 3단과정의 조직적 구성임을 알 수 있다[24]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의례행위이든간에 하나의 의례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前者는 分離, 過渡, 再統合의 三分法으로, 後者는 祭場淸潔, 請神, 送神이라는 三段過程으로 儀禮形式을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노부의례 역시 일정한 규칙성과 형식성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것을 위에 열거한 준거틀에 의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淨化단계→主目的 수행단계→매듭단계

(1) 淨化단계

이는 노부의례의 준비단계 이다. 動駕가 있는 날은 온 都心이 명일처럼 술렁거리고, 행렬이 지나갈 大路는 길을 침범했던 가게(假家)들을 모두 철거하고, 흙을 덮고 물을 뿌려 단장한다[25]. 이는 과거의 어가 행렬이 거행되기 전의 준비 단계를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高麗實錄에 의하면 "왕후마마(憲宗妃林氏)의 높으신 행차를 모실 절차를 의논할 때 「진천고을 백성들은 남녀 가릴것 없이 다 나서서 송도 서울로 통하는 길목을 황토흙으로 깔아 단장하시오!」 父老들이 영을 내리면 행여나 뒤질세라 모조리 나서서 지게를 지고 삽을 들어 황토흙을 땅에 깐다. 至尊께서 납시실 길목이니 淨한 황토흙으로 길을 먼저 단장하는 것이다[26]라고 하였다. 또 구체적으로 두루마리 圖繪인 大韓帝國動駕圖를 보면 行列이 시작되는 先頭에는 도로를 수선하는 庶民 男女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들은 붉은 흙인 黃土를 깔고 비로 쓸며 물을 뿌리고 있다〔그림 III-1〕. 이러한 광경은 民畫에도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부의 준비단계는 공식적인 王室의 기록과 班次圖에는 표현되지 않았으나 위에 열거한 내용과 도회로 미루어 보건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노부의례의 淨化를 위해 쏟았음을 알 수 있다. 이 鹵簿 儀式空間을 淨化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요소를 파악해 보면 바로 붉은 흙인 黃土와 물로 집약되어 진다.

〔그림 III-1〕 도로를 수선하는 人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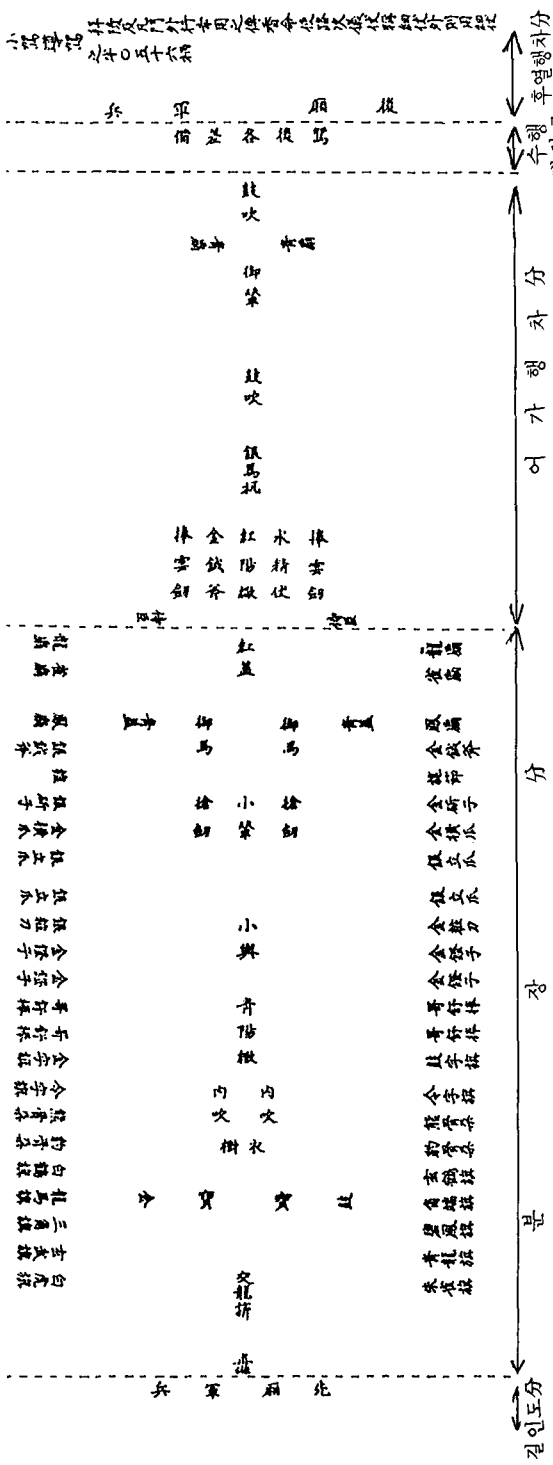
① 黃土의 祭儀的 상징 : 우리나라 巫俗의 祭儀에서 보면 준비단계로서 굿을 하는집 대문 밖에 黃土를 펴고 금줄을 쳐서 不淨한 일반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한다. 이는 祭儀空間을 淨化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15일, 7일, 3일 전부터 붉은 흙인 黃土를 펴고 금줄을 쳐서 인간의 출입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禁忌이다[27].

② 물의 祭儀的 상징 : 祭儀空間을 淨化시키는 것은 이러한 黃土 뿐만 아니라 물도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즉 巫俗의 祭儀와 관련된 물의 상징적 原義를 살펴보면 물은 직접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또 祭儀의 필수적인 금기와 관련되어 淨化를 의미하는 목욕 재계로부터 시작됨을 본다. 또한 준비단계를 거친 本 祭儀에서도 제의 공간을 물로 淨化시키거나 젯상에 정화수를 바치므로, 물은 제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된다[28].

종합적으로 볼때 이와 같이 祭儀나 鹵簿가 거행되는 공간 주위에 미리부터 黃土를 펴고 물을 뿌리는 것은 淨化를 통해 일상적인 空間과 다른 神聖空間으로 이행함을 도와주는 공간적 의미의 規制이다. 아울러 祭儀 및 어가행렬이 淨化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준비과정인 것이다.

(2) 主目的 수행단계

이는 II. 장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각종 禮典과 鹵簿




式과 儀軌班次圖 등에 나와있는 노부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은 禮를 갖춘 君王의 행차이니만치 朝鮮王朝時代 거리에 펼쳐지는 최대의 장관을 이룬다. 이들은 각종 儀仗物과 기치, 호위군대 등의 의위를 갖추고 文武百官과 宗親을 거느린 만큼 의식의 규모나 그 절차 및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복잡한 노부의 형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규모가 작은 단위이면서도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小駕鹵簿를 기본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5分하여 보았다(표 III-1).

① 길인도分 : 지존이신 王의 행차를 앞에서 인도하는 先廂軍兵과 둑, 교룡기 등의 의물로서 구성되어 진다.

② 분장分 : 노부를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며 흥미있게 단장해 주는 행렬分이다.

수많은 각종 기치, 의장물을 들고 가는 의장병과 군악대인 內吹로 구성되어 있다.

③ 어가행차分 : 가장 중핵적인 형식分으로서 이 의례행렬의 주인공인 王의 행렬이다. 요소로서는 侍臣과 친시위의물 및 鼓吹 악대 등이 있다.

④ 수행행차分 : 文武百官 등의 호위 陪臣들로서 駕後各差備라고 통칭한다.

⑤ 후열행차分 : 왕의 행차를 마무리 하는 分으로서 後廂軍兵이 어가뒤를 따른다.

이상과 같은 5分된 주목적 수행단계의 구체적 내용은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할 것이다.

(3) 매듭단계

노부를 마무리 지어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별로 없다. 따라서 무엇이 "매듭단계"로 표현되는지는 매우 의문 이지만 국가적인 儀禮행사인 노부이니만치 반드시 의식을 마무리 해주는 의례형식이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될 때 까지는 일반적인 의례의 형식을 근거로 있어야할 매듭단계의 행위를 추출해 낼 도리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래의 巫俗儀禮와 民俗등에서 행하여지는 歲時儀禮的인 행사에서 매듭단계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1) 巫俗儀禮의 祭儀的 행사

祭儀空間을 淨化시키는 不淨굿은 지역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물과 불이 등장한다. 嶺東地域의 不淨굿에서는 무당이 祭儀空間 주위에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나서 짚 한단에 불을 붙여들고 제의공간 주위를 한바퀴 돌아

〔그림 III-2〕 볏가릿대(禾竿)

태워버린다. 또, 내림굿, 府君堂굿, 꽃맞이굿의 不淨굿에는 不淨床위에다 淸水에 재를 풀거나 숯을 띄운 대접을 놓는데 이것은 물의 象徵性에 불의 燒却 의미까지 복합된 것이라고 보인다. 부정굿이 끝나면 이 물을 들고 무당이 祭儀空間 주위를 한바퀴 돌며 골고루 뿌리고 나서 燒紙를 올린다. 또 제물을 많이 올리는 큰 祭儀에는 반드시 촛불을 밝히고 燒紙를 올려 불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不淨굿이나 큰 祭儀에 반드시 따르는 불은 祭場의 단순한 淨化를 지나서 일상적인 現實空間의 것을 모두 불로 태워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神聖視된 불의 힘으로 인간의 기복을 염원한다는 의미로 풀어진다.

2) 歲時儀禮의 祭儀的 行事

농경민은 농업이 시작되는 年初의 파종기와 농사가 끝난 수확기에 主된 儀禮를 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년의 마지막 날인 설날 그믐날 밤에 「歲守」라하여 집안 곳곳에다 불을 밝히는데 불은 燒却의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묵은것 일체의 것을 불로 태워버림을 의미한다. 또 正月 14日이 되면 볏가릿대(禾竿)를 세우고 집 주위를 청소하여 비로 쓸어 모은 쓰레기를 해가질 무렵에 불붙여 태운다. 그 밖에도 쥐불놀이, 횃불싸움, 달집태우기등 모두 불로 태워 없애는 일련의 행사가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지나간 해의 묵은 것을 불로 태워 없애므로서 완전히 없어진 無에서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질서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29]. 여기서 "새로운 질서화"의 의미는 농작물의 번영을 위한 염원의 장이다. 생명력의 更新을 위해 옛것을 버리는 分離儀禮이며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는 再統合儀禮인 것이다.

위의 2가지 사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불"이다. 巫俗이든 歲時儀禮이든간에 무엇인가 태우는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상징적 효과는 인간生存의 기복에 대한 끝없는 염원이다. 따라서 鹵簿儀禮의 마지막 매듭단계는 "불"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등장 하리라고 추정된다. 그 근거로써 민화〔그림 III-2〕에 나타난 導駕를 보면 붉은 흙(黃土)을 갈고 물을 뿌리고 단장하는 길에서부터 시작하여 행렬의 요소 요소에 볏가릿대(禾竿)를 세워 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세시의례에서, 정초에 풍년을 기원키 위해 볏가릿대를 태우는 행위와 일맥 상통한다. 또 실제로 禮典類의 어가행렬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례도감의궤 반차도에는 횃불을 들고가는 捧炬에 요즈음의 청사초롱과 같은 등촉을 들고가는 捧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

〔그림 IV-1〕 捧炬 : 철종 철인후 가례반차도

림 IV-1). 물론 임진왜란 직후의 초기 반차도 2~3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는 경황중에 치루어진 의식이기 때문에 미처 갖추지 못한 탓이라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君王은 살아있는 神과 같은 위치로 추앙받는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王이야말로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지존이 납시는 어가행렬은 백성들에게 현실세계의 고통스러움을 밝혀주는 등화불과 같은 감동을 줄 것이며 君王을 통해 어두움을 퇴치하고 삶의 희망을 갖게하는 신성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章인 것이다. 결국 매듭단계에서 행할 수 있는 儀禮행위는 볏가릿대(禾竿)를 태우는 등화불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IV. 鹵簿儀禮의 검증적 內容構造

III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분류한 鹵簿儀禮의 형식틀을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 형식틀을 기본체계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구조를 검증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정화단계, 주목적 수행단계, 매듭단계의 3단계 형식으로 분류하여 필수적인 요소를 검출하고 그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려고 한다. 아울러 자료가 되는 한 次第의 변천을 살피면서 당연히 존재했을 社會의 流動性을 찾아 보려고 한다. 다만 주목적 수행단계를 前章에서 길인도分, 분장分, 어가행렬分, 수행행차分, 후열행차分의 5分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은 실제작업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검증과정의 방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여 보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길인도分만 선별하여 풀어나가고자 한다.

내용검증을 위한 자료로서는 II장에서 언급된 禮典類, 儀軌類, 圖繪類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즉 禮典類로서는 세종실록, 국조오례의, 속국조오례의, 노부식을 시대순으로 배열하여 사용하였고, 儀軌類로서는 20件의 厂代 嘉禮都監, 班次圖를 시대별로 선별하여 활용 現場感있는 시각적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圖繪類도 필요할 때에 간간히 인용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요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구조주의 방법론의 문을 연 Lévi-strauss의 "萬華鏡의 方式"의 論理構造와 心理學者, Hall의 제창인 素(isolate)의 개념에 의하여 鹵簿에 적용시켰다.

〔표 IV-1〕 정화단계와 매듭단계의 素

| 각 요소의 등장인물 복식 | |
|---|---|
| 청 소 도 구 | |
| 물 | 각 요소의 등장인물 복식 |
| 黃 土 | 불 |
| 정 화 단 계 素 | 매 듭 단 계 素 |

### 1. 정화단계와 매듭단계의 요소 및 기능

정화단계와 매듭단계의 요소를 검출하여 素 기둥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표 IV-1〕.

(1) 정화단계의 요소 및 기능

1) 黃土 : 일상의 흙이 아닌 淨한 흙으로서 붉은 황토를 사용, 신성한 공간을 만든다. 지존이 납시는 길에 黃土를 뿌리는 기록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실제로는 上代 祭儀에서도 존재했으리라고 본다.

2) 물 : 어떠한 類의 의례나 祭儀에서는 반드시 사용되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상징적 의의가 깊은 항목이다.

3) 청소도구 : 빗자루, 삼태기 등으로 실제로 쓸고 닦아 깨끗이 하는 역할과 함께 한편으로 정화의 상징적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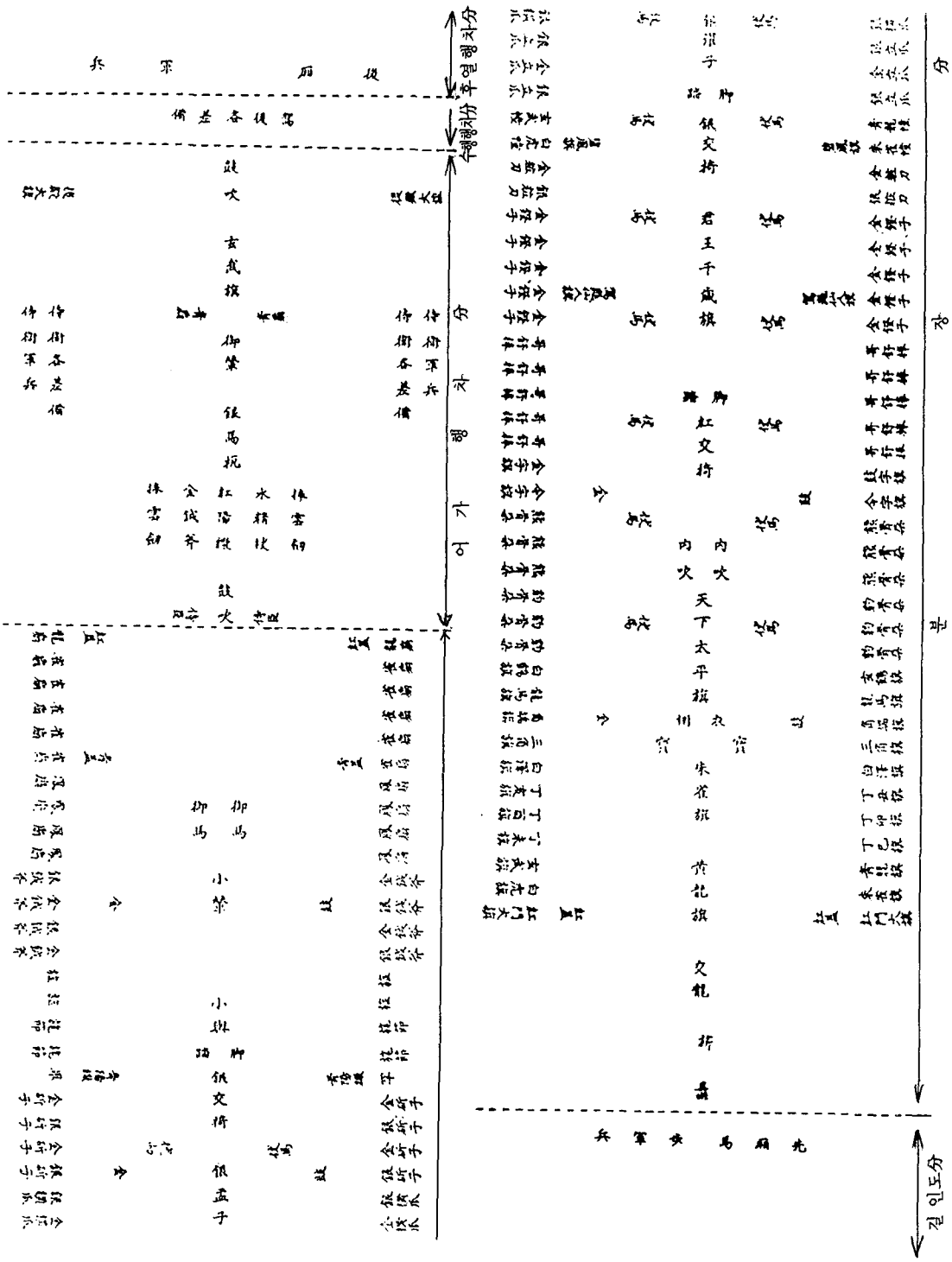
4) 각 요소의 등장인물 복식 : 정화단계에서 황토깔고 물뿌리며 청소하는 인물들은 모두 서민의 복색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서민들이 동원된다는 것은 治天下하는 君王의 위엄을 확인시키는 사회통제의 기능이라고 해석된다.

(2) 매듭단계의 요소 및 기능

1) 등화불 : 볏가릿대(禾竿)가 매듭단계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儀禮가 행하여 질때 물과 불은 반드시 등장한다. 가례도감의례의 班次圖에는 횃불을 든 의장수(捧炬人)가 후기인 영조정순후 부터 등장하여 國末까지 변함없이 쓰였다〔그림 IV-1〕. 이 매듭단계에서 사용될 등화불의 기능은 어두움을 밝혀 현실세계의 괴로움을 면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는 보호감정과 안도감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의 범주라고 풀이된다.

### 2. 주목적 수행단계의 요소 및 기능

주목적 수행단계는 II장에서 분류한 5分 형식을 적용




〔표 IV-2〕 大駕導駕의 5分 형식구조

〔표 IV-3〕 주목적 수행단계의 素분석

| | | | | |
|---|---|---|---|---|
| | ·각 요소 등장인물 복식<br>·車 馬<br>·어용의물<br>·樂器(金鼓)<br>·儀仗物<br>·儀仗旗<br>·淸 道 | ·각 요소 등장인물 복식<br>·鼓 吹<br>·어용의 물<br>·親시위儀物<br>·親시위<br>·侍 臣<br>·御 輦 | | |
| ·각 요소 등장인물 복식<br>·先排·軍兵<br>·導 駕<br>·馬上才 | | | ·각 요소인물 복식<br>·종 친<br>·陪從文武百官 | ·각 軍兵 복식<br>·後排軍兵 |
| 길인도分 | 분장分 | 어가행차分 | 수행행차分 | 후열행차分 |
| 주목적 수행 단계의 素 분석 | | | | |

하였으며 시각적인 자료인 가례반차도가 大駕인 점을 감안하여 大駕導駕를 선택하였다〔표 IV-2〕.

이들을 다시 5分別로 각각 2 요소를 검출하여 素기둥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표 IV-3〕.

大駕導駕는 어가행렬중 가장 규모가 큰 의례행렬이다. 따라서 시대의 前後를 막론하고, 또 어떤 類의 어가행렬이든간에 일단 위의 주목적 수행단계의 5分의 범주에 속할 것이며 素 分析 역시 위와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5分의 요소 및 기능을 모두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만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제1分인 길인도分만 sampling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또 각 요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입고 있는 服飾도 당연히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그 역시 매 요소마다 복식이 등장하는 현상이므로 다음 기회의 연구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1) 길인도分

지존의 길을 앞에서 인도하는 次第이다. 이 次第의 요소는 馬上才, 導駕, 先排軍兵으 이루어진다.

1) 馬上才 : 大韓帝國動駕圖의 가장 앞부분은 馬上曲藝를 하는 下級軍人과 말을 치달리면서 활을 쏘는 武術솜씨를 보여주는 軍官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IV-2〕. 下級軍人은 靑色 短背子를 입고 紅帽를 쓰고 軍官은 具軍服을 입고 있다.

이러한 馬上才 내지는 曲藝는 고구려의 안악3호분 행렬이나 고려의 행렬에서도 있어 왔으며[30] 조선시대의 어가행렬에서도 항상 존재했다고 보아진다. 이 일련의 마상재 및 곡예는 어가행렬이 있기 전의 준비단계로서 일반백성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 지존이 납시는 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효과를 냈을 것이며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흥미유발의 행위였을 것이다. 이는 앞서 III장에 긍정적 기능에 대한 역기능의 범주에 속한다. 즉 아슬아슬한 馬上曲藝를 봄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피곤을 느끼지 않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그림 IV-2〕 馬上才

2) 導駕 : 大駕의 길인도分의 2번째 요소는 導駕이다. 導駕에는 당부의 주부,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호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의금부의, 당상관이 등장하여 어가를 인도한다.

이것은 조선조 초기인 세종실록이나 국조오례의 조선

조 후기인 숙국조오례의 등에도 변함이 없다. 노부식에는 생략되어 있다. 厂代儀軌의 班次圖에서도 이들이 使令이나 書吏등 부하관원을 거느리고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 체제는 國末까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 신분계층의 엄격함속에서 당상관 이상의 높은 관원이 관복을 펼쳐 입고 어가행렬을 맨처음 인도한다는 것은 어가행렬 전체를 높은 존재로 격상시키며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결국 이 導駕의 사회적 기능을 기존 신분계층의 엄격함을 확인 강화시키므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통제기능의 범주에 속한다.

3) 先廂軍兵 : 거동때에 駕前에서 길을 인도하는 전위대로서 國初부터 國末까지 이 형식에는 변함이 없다. 國初에 해당하는 세종실록에 의하면 강력한 군대의 힘을 느끼게 한다. 갑옷, 투구를 입고 劍, 장검, 군시, 반주창을 든 待衛君 8대 무기와 제복을 입고 都城衛 40대, 갑옷, 투구 기계를 든 銃筒衛 300인,右君 8대, 中君 4대등 다수의 군대가 행렬앞에 나서게 된다. 성종대의 국조오례의에서는 甲冑와 兵器들을 右廂軍士와 身遂로 되어 있어 표현은 간략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갑옷과 투구, 기계등으로 무장한 다수의 군대를 동원함은 건국초이기때문에 정치적 권력싸움을 위한 군대의 강성한 힘의 과시를 필요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강력한 힘의 과시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례의 첫번째 기능인 사회통제기능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영조代 속국조오례의에 의하면 갑주를 입은 訓局馬兵[31]은 大駕에는 갑주를 입지만 교외 및 성내 거동일때는 전립과 전복을 입는다. 그리고 步軍은 戰巾과 戰服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 初·中期의 갑주병 위주의 시위가 후기의 의장병 위주의 시위로 전환되어가는 시기라고 해석된다. 같은 시기의 영조 정순후의 가례반차도에서는 馬兵이나 갑주병은 눈에 띄지 않아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 또 후기의 의제류에 등장하는 先廂軍兵은 무장군인의 역활보다는 의장병의 역활로 치중되는 느낌이다. 令旗, 令箭, 實耳, 棍杖등의 군대용 儀物을 많이 들고 등장하여 싸움하는 군대로서의 면모보다 의례를 치장하기 위한 장식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현상은 말기로 갈수록 더 심화된다. 또 1900年代 후의 반차도에는 서양식 군대가 등장하고 있다. 결국 후기로 갈수록 馬兵이 줄고 갑옷, 투구를 입고 병기를 잡은 무장군인이 임진란이후 화기(火器) 발달로 인해 줄어들고 장식적으로 상징화되어가고 있으며 복식은 초기의 투구 갑옷에서 후기는 戰巾, 戰服으로 대치되어 가고, 다시 말기에는 서양식 군복으로 변천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조선왕조 前期(세종代)는 무장군인이 대거 등장하여 힘의 과시를 나타내고 中期(성종代)는 군대제도의 정비가 드러나 왕조가 안정을 누리며 後期(영조代)는 임진란 후의 혼란속에 무너진 노부제도가 재정비 확립된 시기로 문물의 중흥에 노력하였고 후기(철종 代)는 재정비된 제도를 근본으로한 장식화 및 가시화가 이룩되어 조선문물의 완숙기 역할을 하였다. 말기에는 서양제도의 유입으로 군복이나 군제이거나 간에 서양문물 혼합기를 이루었다.

초기…무장갑주병(갑주)…힘의 과시(초창기로서의)
중·후기…의장병(有色衣)…장식성(완숙기로서의)
말기…서양식군대(양복)…서구문물化(대변혁기의)

건국초기의 강성한 힘을 표현한 무장 갑주병이나 장식성이 강한 의장병이나간에 이 先廂軍兵은 모두 강력한 힘의 과시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례의 첫번째 기능인 사회통제기능의 범주이다.

## V. 결 론

지금까지 복잡한 요소가 뒤섞여 혼합되어있는 鹵簿(어가행렬)儀禮를 총체적인 모습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 결과, 노부의례의 형식구조와 내용구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었다.

### 1. 노부의례의 보편적 형식구조

일반의례와 무속의례의 祭儀과정을 사례로 연구한 결과 아무리 복잡하고 큰 의식인 경우의 노부의례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보편적 형식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즉, 1단계는 淨化단계, 2단계는 주목적수행단계, 3단계는 매듭단계이다. 그리고 주목적 수행단계는 다시 ① 길인도分, ② 분장分, ③ 어가행차分, ④ 수행행차分, ⑤ 후열행차分의 5分으로 나누어진다.

### 2. 노부의례의 검증적 내용구조

Lévi-strauss의 구조주의에 입각하여 3단계 5分의 형

식구조 속에서 다음과 같은 要素가 검출되었고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속에서 사회적 기능과 次第의 변천을 해석하였다.

(1) 정화단계의 素는 黃土, 물, 청소도구 및 각 요소마다 등장하는 인물의 복식이다. 이들 黃土깔고, 물뿌리고, 청소도구를 들고 청소하는 것은 모두 백성들이 부역한다. 이는 지존이 납시는 신성한 공간을 일상과 분리, 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君王의 권위를 재인식 시키는 사회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

(2) 주목적 수행단계는 5分된 구조 중에서 그중 길인도分만 선별하여 요소별로 분석, 검증하였다. 길인도分의 요소는 馬上才, 導駕, 先廂軍兵, 그리고 각 요소마다 등장하는 인물의 복식이다.

1) 馬上才와 곡예 : 어가행렬이 실행되기전의 준비단계로 고구려 벽화의 행렬에도 나타난다. 백성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긴장 해소를 시키는 긍정적 기능에 대한 역기능의 사회적 기능이 있다.

2) 導駕 : 당상관 이상의 높은 관원이 어가행렬 전체를 앞에서 이끄는 요소이다. 이는 高官의 신분 복식으로 인하여 신분계층의 엄격함이 강조되는 사회통제 기능이다.

3) 先廂軍兵 : 仗代 軍兵의 모습을 검토한 결과 조선왕조 前期인 세종代는 힘의 과시를, 成宗代는 왕조의 안정을, 後期인 英祖代는 문물의 중흥, 哲宗代는 노부 군대의 장식화 및 과시화로 인한 조선문물의 완숙기임을 末期는 서양문물의 혼합기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의례내에서의 軍兵이 갖는 기능은 君王의 힘과 능력을 확인시키고 강화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통제의 기능이다.

(3) 매듭단계의 요소는 등화불이다. 등화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의미로서 보호감정과 안도감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요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데 그치고 鹵簿의 전체 內容을 요소별로 일일이 검증하는 작업은 다음기회로 미루었음을 밝혀둔다.

## 참 고 문 헌


1) Claude Lévi-Strauss, La Pansee Sauvage, Plon 48~55
2) 白英子, 우리나라 鹵簿儀衛에 관한 연구(박사논문) 77, (1985) (요소분류방법은 이 부분을 참조할 것)
3) 세종장헌대왕실록 2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5, (1981)
4) 李弘植, 國史大辭典, 一中堂, 352, (1978)
5) 白英子, 77 (1985)
6) 모든 신하들이 한달에 4번씩 검은 옷을 입고 政殿에서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政事를 이뢰는 일
7) 朴炳善, 朝鮮朝의 儀軌(古典資料叢書 85-1), 韓口精神文化研究院, 8~9 (1985)
8) 유송옥,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박사논문), 1, (1986)
9) 이 嘉禮儀軌에는 王의 嘉禮가 9件, 王世子의 嘉禮가 9件, 王世孫의 嘉禮가 1件, 皇太子의 嘉禮가 1件으로 되어있다.
10) 國婚時 행하여지는 嘉禮儀式節次는 六禮로서 納采, 納徵, 告期, 册妃(世子嬪의 경우 册嬪) 親迎, 同牢이다.
11) 班次圖中正組孝懿后 嘉禮
12) 白英子, 91, (1985)
13) 李京子, 動駕鹵簿의 服飾研究, 韓國文化研究院論叢, 梨花女子大學校, 483, (1982)
14) 白英子, 108, (1985)
15) 志和池昭一郎, 龜倉雄策편집, 이조의 민화, 講談社 (昭和 57年)
16) 白英子, 112-241, (1985)
17) 전경수, 민족과문화, Ⅰ. 민속, 종교, 진도下沙漢의 의례생활, 334-336, (1988)
18) 앞의 책
19) 장철수, 민족과문화 : Ⅰ. 민속, 종교 : 유교 상례의 초혼에 대하여, 정음사, 304, (1988) (장철수는 여기서 rites of passsage가 주기성·공간성을 아울러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平生儀禮로 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0) Ar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3, (1960)
21) 이광규, 文化人類學槪論, 一朝閣, 290, (1985)
22) 이광규, 289, (1985)
23) 앞의 책
24) 金泰坤 a, 韓國坐俗研究, 集文堂, 51, (1985)
25) 孫禎睦,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351~352, (1982)
26) 金英坤, 高麗實錄王妃列傳 : 太祖憲宗編, 高麗出版社, 392, (1981)
27) 金泰坤 b, 韓國神堂研究, 국어 국문학회, 국어국문학 Vol. 29, 67~99, (1965)
28) 金泰坤 c, 민족과문화, Ⅰ. 민속, 종교, 물의 祭儀的原義象徵, 정음사, 128~129
29) 金泰坤 a, 466~467, (1985)
30) 白英子, 284, (1985)
31) 훈련도감에 소속된 騎兵을 말하는 것으로 訓局은 훈련도감의 약칭이다